

이룩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산평화교회

이달의교회



최석원 목사



부임하신 지 이제 4년밖에 안되었으나, 교회는 안팎으로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3.5배 이상의 수적 성장도 일구어내신 것으로 듣고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간의 얘기를 좀 해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앞서간 교역자들과 또 성도들이 눈물과 기도와 땀의 씨앗을 많이 뿌리셨고, 저는 때가 되어 그 열매를 거두고 있을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오산평화교회가 지역사회의 심장이 되기를 위해 기도했고 통전적 사역 위에서 이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게 하셨고, 현재 교회는 그 영향력의 파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비전스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이 달라진 것으로 안다. 이 스쿨을 포함하여 오산평화교회가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대내외 사역이 무엇인지 소개해 달라.

“저는 인재목회와 감동목회라는 두 기둥으로 교회를 이끕니다. 특히 사람을 키우는 교회, 차세대 인재를 키우는 교회가 되고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4년 전에 시작한 비전스쿨은 영어스쿨, 독서스쿨, 외국어스쿨(중국어, 일어, 스페인어)로 그 폭이 넓어져 가는 것과 아울러 상담대학과 함께 최근에 저희는 ‘부모스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개설한 부모스쿨이 안팎의 좋은 평을 받았구요, 올해도 오산시의 위탁을 받아 10주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10월에도 오산 시청 후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아버지학교를, 11월에는 하이패밀리와 함께하는 초교과 가정사역 페스티벌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재목회로서, 교회 내적으로 성도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위대한 부모 밑에서만 위대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명제 아래, 모든 성도들이 ‘위대한 삶의 회복’이란 양육·훈련·재생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당회입니다. 먼저 당회원들이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사역과 훈련의 선두에 서서 이 일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정책당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역당회로 바뀐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 사역에 큰 기초가 됩니다.”

홈페이지에 교회를 소개하는 글을 보니, 심을 맨 처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매우 신선했다. 그리고 ‘변화’라는 키워드가 비전선언문에서 ‘치유와 회복’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모두가 평소의 교회관이 정리된 것인가?

“현대인들이 너무 지쳐 있기에 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근거해 사역의 단순화와 전

문화로 지향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목회의 초점은 ‘변화’입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 교회, 지역사회, 더 나아가 역사까지도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변화의 과정(form → inform → conform → transform → reform)을 잘 이해한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보았구요, 그래서 저는 각 분야에 탁월한 지도자를 세우고 이의 재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산평화교회는 향후 이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어떻게 답하시겠는지?

“지금까지는 정지작업에 주력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이제 본격적인 이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산평화가족 모두가 이에 공감하고 헌신과 기도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정기스칸 군대’가 되고자 하는 비전과 열정,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여 동안 초교과적으로 300명의 목회자가 교회 비전트립을 다녀가셨는데요, 이토록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주목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 앞에 우리는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특집으로 설교비평을 ‘비평’해 보고자 한다. 신 선하기도 하고 파격적이기도 해서, 요 몇 년 동안 한국교계의 핫이슈였던 설교비평에 대해 이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본지 또한 근 2년간 설교비평을 해왔다. 교단지이기에 성결교회 내의 목사님들을 상대로, 지역과 연령대를 어느 정도 고려하여 진행했다. 차제에 평소 설교비평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

“무엇이든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의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설교가 목회의 핵심 추진모터라 할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더 나아가 혁신(Innovation)의 노력을 기울이는 설교가 진정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건강한 설교비평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산평화교회 역사

1975년 5월 4일 이건교, 홍길표 전도사에 의해 창립된 이래 건교한 기초를 놓았던 이준성 목사, 그 기초 역량을 다진 3대 김현곤 목사에 이어, 2003년 9월에 부임한 4대 최석원 목사에 의해 이 시대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는 교회’를 꿈꾸며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해 가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앞서간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귀한 수고로 축적된 성장역량을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출석성도가 세 배 반 이상 성장하고, 현재 지역사회를 선도해 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 현재 출석 900여 명(청장년 700명, 청소년·영유아 20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진정한 비상을 위해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